



갯실새삼 / *Cuscuta chinensis* Lam.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새삼속 |
| 과국명 | 메꽃과 |

| | |
|------|--|
| 과명 | Convolvulaceae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메꽃과 기생성 한해살이풀로 우리나라, 중국 등 동북아시아, 중앙아시아, 동남아, 오스트레일리아에 분포한다. 바닷가에서 자라며 내륙지방(수원, 경주 및 강계)에서도 발견되었다.</p> <p>분포지역 : ▶한국, 중국 등 동북아시아, 중앙아시아, 동남아, 오스트레일리아에 분포한다.</p> <p>형태 : 기생성 한해살이풀 .</p> <p>크기 : 줄기의 길이가 1m에 이른다.</p> <p>꽃색 : 백색</p> <p>개화기 : 7월,8월</p> <p>순비기 나무 등에 잘 기생하는 식물로 실새삼과 비슷하지만 콩과식물에 기생하지 않는다.</p> <p>줄기는 털이 없으며 노란색이고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.</p> <p>잎은 없으며 비늘같은 삼각형 달걀모양의 비늘조각이 드문드문 어긋나기한다.</p> <p>꽃은 7~8월에 흰색 꽃이 핀다. 짧은 꽃자루의 꽃이 촘촘하게 총상꽃차례에 달려 1개의 덩어리 같다.</p> <p>열매는 편평한 공모양이며 꽃받침에 싸여 있고 씨앗이 4개씩 들어 있다.</p> <p>열매는 10월에 익어 껍질이 말라 쪼개지면서 씨앗을 퍼뜨린다.</p> |